

석사학위논문

#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 연구

지도교수 박태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서정조

2006년 8월

#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 연구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4월 일



제출자 서 정 조

서정조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문 초록>

##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 연구<sup>1)</sup>

서 정 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의료기술의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급속하게 노인인구를 증가시켜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 비율이 7.0%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의 단계를 밟아나가는 기간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해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년인구의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은 노년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노화에 따른 신체적 능력의 저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과 경제능력 상실, 이로 인한 자아존중감 저하 및 심리적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효문화는 부모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 도덕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문화적 기준이 되기에 노부모는 자녀와 동거하는 문화를 유지해 왔지만 현대화로 인한 가족구조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한 젊은 층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향후 가족이나 사회에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에 대하여 직계가족이 지각하는 바를 조사·분석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첫째,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직계가족의 성별, 연령에 따라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가?

둘째,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그들의 연령과, 종교 유무,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부모가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총 185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타당도 검사를 거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계가족 중 남성가족이 지각하는 노인의 삶의 질은 여성가족이 지각하는 것보다 심리적 영역에서 높다.

둘째, 연령이 낮은 노인 집단이 신체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관계에서, 연령이 높은 노인 집단보다 삶의 질이 높다.

셋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노인집단보다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요인, 사회적 관계에서 높은 삶의 질을 가진다.

넷째, 배우자가 있는 노인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집단보다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요인, 사회적 관계의 삶의 질이 높다.

다섯째, 제주도의 4개 시·군 중 남제주군에 사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가장 높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남성가족이 노인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또 종교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요인, 사회적 관계에서의 삶의 질이 높고, 남제주군에 사는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의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4
II. 이론적 배경 .....	5
1. 노인의 개념과 특성 .....	5
2. 제주지역 노인의 특성 .....	11
3. 가족기능과 노인 .....	13
4.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 요인 .....	17
5.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 .....	25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28
1. 연구대상 .....	28
2. 측정 도구 .....	28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0
IV. 연구결과 및 해석 .....	31
1. 일반적 특성 분석 .....	31
2. 가설검증 .....	33
V. 요약, 결론 및 제언 .....	42
1. 요약 .....	42
2. 결론 .....	45
3. 제언 .....	46
참고문헌 .....	48
Abstract .....	54
부록 .....	57

# 표 목 차

<표 III- 1> 응답자 현황 .....	28
<표 III- 2> 노인의 삶의 질 하위요인과 문항분류 .....	29
<표 IV- 1> 사회인구학적 특성 .....	32
<표 IV- 2> 직계가족의 성별에 따른 삶의 질 분석결과 .....	34
<표 IV- 3> 직계가족의 연령에 따른 삶의 질 분석결과 .....	35
<표 IV- 4>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질 분석 결과 .....	36
<표 IV- 5> 종교 유무에 따른 삶의 질 분석 결과 .....	38
<표 IV- 6>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삶의 질 분석 결과 .....	39
<표 IV- 7> 거주지역에 따른 삶의 질 분석 결과 .....	4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는 끊임없는 의료기술의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60년에 62세이던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은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은 2005년에는 77.9세이며, 2050년에는 83.3세로 연장되어 선진국 평균수준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05).

통계청의 2005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보면 1980년에 1,45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했던 노인인구가 10년 후인 1990년에는 2,195천명으로 5.1%를, 다시 2000년에는 3,39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인구는 2010년에는 10.9%를, 2020년에는 15.7%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2050년에는 2005년 현재의 노령인구 4,383천명보다 3.6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율이 7.0%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4%에 달해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비율은 2050년 26.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윤선이, 2002).

미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의 구성비율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 사회’로 바뀌는데 7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19세기

후반부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프랑스와 스웨덴은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각각 115년과 85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20세기 전반부에 고령화 사회가 된 영국은 45년만에 고령사회가 되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24년만인 1990년대 후반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1.16명)로 인해 2018년에 고령사회가, 2026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의 비율을 보이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조차 앞당기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중앙일보 2005. 10. 5).

이처럼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들의 건강이나 여가, 삶의 질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현재 사회화 되고 있는 노인문제는 가족·사회로부터의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및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화 사회가 되고 핵가족문화가 정착되면서 노인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대되어 노인을 학대하고 방임하기도 하며, 이러한 문제는 노인의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또한 소득의 보장이 여의치 않은 경우 질병, 생계의 곤란함까지 가중되어 더욱 어려운 노후를 보내야 하기도 한다. 도시 지역의 노인들은 은퇴로 인한 과도한 여가로 무력감까지 느끼게 되는 반면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낙후된 의료시설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질병에 고통 받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농업노동에 시달리기도 한다.

Feed(1980)는 노인의 삶에서 단순한 생명보존이나 수명연장보다는 생의 의미와 질적인 삶의 유지 증진을 더욱 더 중요시하는 측면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런 Feed의 주장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정재임 외, 2005 재인용).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하여 이루어졌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웅배(2001)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로효친 규범을 가지고 추상



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식의 대전환과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고, 김애련(2001)은 대부분의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낙후된 농촌 환경에 거주하는 노인의 가족결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또한 윤선이(2002)는 노인의 삶의 질은 무엇보다도 가족관계와 관련이 깊으므로 평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노인의 지위향상과 가정의 보호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효는 사회적 가치로 부모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 도덕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문화적 기준이 되기에 우리 사회 노부모는 자녀와 동거하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대간에 상호 의지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다(김유경, 2000). 그러나 현대화로 인한 가족구조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가족중심 부양여건의 심각한 변화를 의미하며, 또한 노인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의 인구 증가에 비하여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향후 가족이나 사회에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입장에서의 삶의 질과 가족구성원인 직계가족이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차이 연구,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노인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은 앞으로 맞게 될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삶의 질 정도에 대하여 직계가족들이 보고 느낀 바를 밝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직계가족의 성별, 연령별에 따라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그들의 연령과 종교 유무,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직계가족의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1. 노인의 삶의 질은 직계가족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노인의 삶의 질은 직계가족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그들의 연령, 종교·배우자 유무,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노인의 삶의 질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노인의 삶의 질은 종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3. 노인의 삶의 질은 배우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4. 노인의 삶의 질은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가족이 지각하는 노인의 삶의 질이 어떠한가를 밝히는 연구로서 이 장에서는 노인의 개념과 특성, 가족기능, 삶의 질의 개념 및 관련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노인의 개념과 특성

노인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 ‘늙은 사람’ 이라고 나타내지만(Naver 사전) 시대적·정치적·문화적·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 일반적 개념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Erikson은 노년기를 자아통합감과 절망감의 위기를 극복해야하는 시기로 규정하여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때로는 불가피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기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Havighust(1972)는 인생의 주기를 6단계로 나누어 독특한 발달과업을 제시하였는데 제 6단계로 60세 이후를 성숙후기인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 나누고 있다(김진미, 2001 재인용).

Breen(1976)은 노인을 생물학적 및 생리적 측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 측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사람, 사회적

측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고(권중돈, 2004 재인용), 국제노년학회(1951)에서는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노인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기능이 감퇴되고, 생체의 자체 통합능력이 감퇴되며,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서 생활상의 적응능력이 결손되어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개념은 노화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인 노쇠와 사회적 역할의 감소로 의존적이며 이를 사회·문화적으로 “효”라는 개념으로 보장하여 연장자로서의 권위를 갖는 사람이라고 하였고(사회복지총서, 1985), 장인협·최성재(2003)는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권중돈(2004)은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규정하거나 65세의 연령에 의해서, 또는 사회적 연령의 개념을 적용한 역할 상실에 의해서, 발달단계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외모, 이동성, 신체적 기능, 생산성, 자아통제력, 정신기능 등의 기능수준을 근거로 하여 노인을 규정하였다.

노인의 특성에 대하여 박웅배(2001)는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성격, 사회적, 경제적으로 구분하였고, 김진미(2001)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영적으로 구분하였다. 김미혜·서혜경(2002)은 신체적, 심리적, 성격, 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하였고, 이봉재(2001)는 노화에 대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호선(2005)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개념은 국가와 시대,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배경, 학자에 따라 다르므로 한마디로 뚜렷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신

체적, 심리적, 경제적, 성격, 사회적 특성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 1) 신체적 특성

신체적인 건강은 노인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하다(안경숙 2002). 노년기에는 주로 노화와 연관된 신체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피부는 탄력성을 잃고 주름이 잡히며 반점들이 생기고, 머리카락은 빠지거나 은발로 변해버려 외적으로 보이는 현상만으로도 노인이라 호칭될 만큼 변화를 보인다. 수정체의 조절능력이 약해짐으로 인하여 66.7%가 노인성 백내장을 보이고 있고, 소리의 고저 및 강도에 대한 감지능력의 약화로 청각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미각이나 후각, 촉각, 통각의 변화를 보이고 예비력의 저하나 방위반응의 저하, 자연적 회복기능의 저하 등 일반적 적응력의 저하현상을 보이기도 한다(김미혜 외, 2002).

이러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90.9%가 만성 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정경희 외, 2005).

## 2) 심리적 특성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이는 심리적 특성으로는 기억력의 감퇴, 학습능력의 저하,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력의 저하 현상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능력이 다 연령과 관계하여 저하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령변인만이 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많다.

학자들이 정의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이론을 보면 Peck은 발달과업이론에서 Erikson의 7~8단계를 통합하여 자아분화 대 직업역할 몰두, 신체초월 대 신체몰두, 자아초월 대 자아몰두라고 규정하였고, Thome의 인지이론에서는 지각, 지각된 상황, 지각된 자아를 강조하며 객관적 변화보다는 주관적으로 지각한 변화가 행동 변화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되어 개인의 지배적인 관심이나 기대치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Salthouse는 노년기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이 축소됨으로써 인지적 수행능력이 줄어드는 반면에 인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많을수록 인지적 수행능력이 증가한다는 자원감소이론을 주장하였다. McCleam의 행동유전이론에서는 유전적 요인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었고, Miller는 정체감위기이론에서 직업적 역할이 개인의 정체감을 지지·유지하는 기반이며 사회적 역할, 생계유지자의 역할 등 부수적 역할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권중돈, 2004).

노년기는 가족구성원으로써의 일에 대한 역할기능을 상실해 가는 시기이며 가족이나 친지들의 무관심, 사회참여나 사회적 이익에 있어서의 기회 상실, 소외감 등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 시기임으로 능력의 쇠퇴와 더불어 의존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김진미, 2001), 신체적인 노화와 함께 배우자나 형제자매 또는 친구의 상실 등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게 되므로 어느 때보다도 애정이나 친밀감 등을 필요로 하게 된다(안경숙 2002).

### 3) 경제적 특성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는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의미

이다. 시대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은퇴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지만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이르면서 맞게 되는 은퇴는 역할의 상실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의 상실로 연결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빈곤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전통적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대부분 경제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김애련, 2001). 그러나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신체적 노화와 함께 부딪치게 되는 은퇴로 인하여 때로는 좌절과 불안, 낮은 자아 존중감을 느끼게 된다.

#### 4) 성격 특성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성격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윤진(1986)은 노년기의 일반적 성격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노화에 따라 사물의 판단과 활동의 방향을 외부보다는 내면으로 향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감각기능의 쇠퇴를 경험하면서 조심성이 증가하며 더불어 옛것을 고수하려는 보수성과 경직성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신체적 노화,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가족 및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고독감,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 등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증가하며 의존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과거에 대한 회상, 친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고, 성 역할에 관한 지각의 변화로 인하여 남성은 친밀성, 의존성, 관계 지향성 등이 증가하는 반면에 여성은 공격성, 자기주장성, 권위주의 등의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김미혜 외, 2002).

Reichard는 노년기의 성격유형을, 매사에 신중하고 은퇴 후의 변화를 수용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며 여생이나 죽음에 대해 과도한 불안이 없는 성숙형, 노화에 따른 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활동 기

능을 계속 유지하는 방어형, 은퇴 후 과거에 힘든 일이나 복잡한 대인 관계에서 벗어나 조용히 수동적으로 보내는 것에 만족하는 은둔형, 젊은 시절 인생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늙어버린 것을 비통해하고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 투사하며 자신의 늙음에 타협하지 않으려 하는 분노형, 지난 인생에 대한 후회가 많고 불행이나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겨 자신이 무가치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여 의기소침하거나 우울증세를 보이는 자학형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장인협·최성재, 2003, 재인용).

## 5) 사회적 특성

사회적인 활동은 가정에서의 고립된 생활을 벗어나게 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삶의 보람을 찾음으로써 노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여준다(안경숙, 2002). 노인의 사회적 특성에 대하여 김영재(1997)는 존재에 대한 무관심, 허탈감, 지난날에의 향수와 원망, 방황, 짜증, 자포자기, 폐쇄성의 증가, 성취감의 결여, 보람의 상실, 주위로부터의 무관심의 증대로 보았고, 김미혜(2002)는 노인도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노년기에 들어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면서 역할의 단절성을 느끼고, 은퇴 및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권중돈(2004)은 노년기로의 전환과 함께 나타나는 노인 개인수준의 사회적 상황변화, 즉 사회적 관계망과 상호작용, 사회규범과 사회화, 그리고 지위와 역할의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노인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듯이 65세 이상으로서, 신체적으로 저항력이 떨어져 시력·청력·모발·피부 등이 두드러지는 변화를 보이며, 사회적 역할과 경제력의 상실로 위축감을 느끼고, 여유시간은 많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가족의 애정과 친밀감 등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연장자라고 볼 수 있다.

## 2. 제주지역 노인의 특성

예로부터 돌 많고 바람 많고 여자가 많아 삼다라 불리었던 섬나라 제주인들은 삼무정신, 수눌음정신, 조냥정신 등의 공동체 의식을 통해 척박했던 자연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왔다. 4.3과 6.25전쟁을 통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밭일과 물질로 생계를 이어온 제주지역 노인들의 강한 정신력은 오늘의 제주가 존재하게 된 거름인 것이다.

송재홍(2004)은 제주도의 사회적 성격을 반영하는 제주인의 강인한 생활력과 개척정신을 삼무정신과 수눌음정신, 조냥정신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보았다.

도둑 없고, 대문 없고, 거지가 없다는 삼무는 평화적인 제주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호의존성과 신뢰성을 토대로 하고, 수눌음 전통은 일종의 노동 품앗이 형태로 협동정신을 일컬으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공동체 의식인 것이다. 또한 조냥(절약)정신은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생활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내면적인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형성된 바람직한 사회적 성격인 셈이며, 척박한 자연적·역사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강인한 생활력과 의지력인 것이다. 외부인들에게 폐쇄성과 배타성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제주인의 특성은 모든 삶의 문

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던 제주인의 강한 자존적 생활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김항원(1990)은 제주도의 노인들은 거의 대부분 사투리를 사용하여 제주도 언어의 고유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곤밥먹기가 힘들었던 기억과 돌레떡·침떡·빙떡의 기억, 생선국 등의 기억을 통해 식생활에 대한 높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삼무정신과 조냥(절약)정신, 강인과 검소, 자립심과 곤난극복 의지 및 독립심의 가치관으로 풍수해와 가뭄을 자주 겪어야 하는 자연환경을 이겨내고, 생산성이 낮은 척박하고 영세한 토지에서 주로 밭농사를 지으면서도 노동의 평등, 남녀평등, 재산상속의 평등 및 빈부의 차가 별로 없는 평등사회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방경자(2004)는 선행연구를 통해 제주의 노인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온 세대로, 자신의 삶보다는 가족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조차 못하며 인생을 정리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김진영(2002)은 제주지역 노인들의 삶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기능(ADL)과,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보다 복잡한 차원의 일상생활 활동(IADL)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이, 생활비를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보다는 자신의 수입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시지역보다는 군지역의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장수노인이 많은 제주지역과 전국의 노령인구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05년 현재 제주의 노령인구는 10.3%로 전국 노령인구 9.1%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2001년 과 비교했을 때 전국의 노령인구 상승률 1.5%보다 높은 1.7%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볼 때 10년

후인 2015년 제주의 노령인구는 14.4%를,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4.3%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의 노령인구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2001년에 남성32.0%, 여성68.0%, 2005년에 남성35.3%, 여성64.7%를 나타냈지만 2030년에는 남성44.9%, 여성55.1%의 비율로 점차 비슷한 비율을 예고하고 있다(통계청, 2005).

바다를 일터로 삼아 원시적 수준으로 작업을 해야 했고, 일제시대의 징용으로, 4·3사건으로, 돈벌이 등의 원인으로 인한 남자들의 부재가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더 나아가 재혼과 첩살이 등의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김혜숙, 2002). 이러한 남성의 부재로 인한 생계유지는 가사일과 더불어 밭일, 물질 등 여성들의 몫으로 남겨져 힘겹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다.

이처럼 어려운 자연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제주 노인들은 해녀의 물질로 인한 질환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70~80세가 되어도 쉬지 않고 밭이나 농장에서 일을 하여 경제적으로 기여하며, 경조사나 농사일에 수눌음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제주 노인의 특성은 오늘날 후손들에게 이어져 척박했던 환경을 더없이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지킬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어지러웠던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 3. 가족기능과 노인

#### 1) 가족의 기능

가족은 인간이 가진 제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이며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사회적 환경으로서,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기본적인 사회제도이다. 또한 가족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회 공통의 행동 특징과 문화규범을 습득시키는 사회화 과정을 담당하는 사회의 가장 기본집단이 되며 사회를 존속시키는 기본 단위이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가족에 소속되며 가족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한 개인으로 성장해 간다. 가족은 상호작용하는 인격들의 통일체로서 Miller는 가족을 구조와 기능을 가진 하나의 체제로 보았으며, Gilliss는 가족의 개인단위로서 동시에 자주적이고 집합적인 것이나 구성요소를 포함한 그 자체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 복합체라고 하였다(이영희, 1998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사회화 과정을 담당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집단을 가족이라고 정의한다.

가족의 기능이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김주수(1982)는 하나의 소집단으로서의 가족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고, 오명근 외(1989)는 사회를 존속시키고 가족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가족이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에 강조점을 두어 정의하고 있다.

이문행(1994)은 Lewis, Beavers, Gossett 와 Philips(1976)의 연구를 인용하여 가족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은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친밀한 동시에 개인적인 자주성이 존중되고 개성과 독립성을 인정해 주며, 분리와 상실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져 가족성원들의 성장과 발달, 노쇠와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 했고, 강수진(2000)은 가족원 개개인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원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적절한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지속하여 어떠한 문제 상황에

서도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고 균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족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하였다.

가족기능의 유형은 정의하는 학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크게 고유기능과 기초기능, 부차적기능(파생기능)으로 나누고, 다시 각각 대내적 기능(개별적 기능)과 대외적 기능(사회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유기능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대내적 기능으로서 애정 및 성의 기능과 자녀출산 및 양육의 기능을 들 수 있으며, 사회적 기능으로서는 성적인 통제와 종족보존의 기능이 대응한다.

기초기능은 경제적 기능으로 대내적으로는 생산과 소비의 기능을 들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노동력의 제공과 생활보장의 기능이 대응한다.

부차적기능은 고유기능과 기초기능으로부터 파생되어온 기능으로 대내적 기능에는 교육·보호·휴식·오락·종교 등의 기능을 들 수 있으며, 대외적 기능으로서 교육에는 문화전달기능이, 보호 등 그 밖의 기능에는 사회안정화의 기능이 각각 대응한다(유영주 외, 1995).

가족의 기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Olson 등이 개발한 Circumplex Model은 가족기능을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가족의 의사소통의 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신은정, 2004).

Olsen, Sprenkle & Russel(1986)은 ‘가족 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가족성원간의 상호의존성과 가족체계내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자율성의 정도를 가족응집성이라고 하였다(송미화, 2001 재인용).

황수영(2000)은 상황적 혹은 발달적 긴장에 반응하여 가족의 규칙, 힘의 구조 및 관계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융통성을 가족적응성이라 하고, 이는 가족이 위기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체계의 권력구조나 역할 및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신은정, 2004 재인용).

가족의 의사소통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에 대해 촉매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이를 저해하는 폐쇄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은정, 2004)

이와 같이 가족의 기능에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현대를 사는 가족들은 가족 구성원간의 애정을 더욱 도모하고자 애쓰며, 가족원으로서의 안정감과 지속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만족감과 목적의식 부여, 통제력과 정의감의 확립 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잘 기능할 수 있는 정신적·정서적 건강의 중요한 근원이 된다.

## 2) 가족속의 노인

현대 가족의 형태는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3세대 이상이 사는 확대가족, 자녀 중 가계를 계승하는 아들 부부와 그의 자녀로 이루어진 직계가족, 부부만 사는 부부가족, 부자가족, 모자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하은아, 2002), 한 가족을 이루는 성원들의 수와 그 성원들이 차지하는 가족 내 지위의 종류는 그 구성원 개인의 생애주기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한 사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의 지위와 관계망이 다르게 짜여져 간다(전종미, 2003).

조은숙·옥선화(1995)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의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순서를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의 순이라고 하였고, 양옥경(2001)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7.1%가 부모와 형제자매로 가족의 범위를 한정시켰으며, 조부모를 가족의 범위에 포함한 경우는 11.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김효정(1995)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자녀들의 이런 인식에도 불과하고 계속 물질적 혜택을

배풀고, 재산을 물려주며, 자녀의 어려운 일에 재정적·심리적 도움을 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자녀에게 부양받기를 기대하는 규범결속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유경, 2000 재인용).

가족간의 상호작용과 결속을 보면, 가족들이 불편해 하는 구성원으로 남성은 장모를 3위에 꼽았는데 이유는 어렵다는 것 때문이며, 여성은 시어머니가 1위로 나타나 고부갈등이 가족결속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동원 외, 2002).

1980년대 후반만 해도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동거율이 80%에 가까웠지만(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6), 2000년에는 54.7%로 나타나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동·별거 결정요인을 보면 노부모의 건강상태나 노부모와 자녀의 경제상태, 가치관, 상호교환, 동거부양에 대한 사회적 유인 등이 관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톱크족(Two Only No Kids)이 등장하면서 자녀들의 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노부부끼리 노년기를 자유롭게 향유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권중돈, 2004).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사상에 근거한 경로효친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든 덕행의 근본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사회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대화가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세대차이와 효도관의 변화 등으로 공경하는 마음 없이 노인을 부양한다는 의무만 남게 된 실정이다.

## 4.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 요인

### 1) 노년기 삶의 질 개념

삶의 질이란 일상적으로 폭넓게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다. 인간생활의 질의 문제인 인간 삶의 정도와 가치를 다루는 삶의 질은 각 연구자마다 접근하는 관점, 목적, 방법에 따라 다르게 보고 있어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쉽지가 않다.

삶의 질은 초기에는 주로 신체적인 면을 강조하여 정의하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Mcgilvy, 1985; 정재임 외, 2005 재인용).

Aristoteles는 삶의 질을 행복한 삶과 동일하게 보고 행복한 삶을 기쁨, 명예, 부(富) 라는 대중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고, Socrates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정의하였다. Dubos(1976)는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얻는 만족감과 관계되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라 하였고(김진미, 2001. 재인용), 노유자(1988)는 삶의 질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상태로 정서상태, 경제생활, 자아존중감, 신체상태와 기능, 이웃관계 및 가족관계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Szalai(1980)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삶의 질은 개인의 다양한 생활속에서 느끼는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상태, 경제문제, 결혼생활의 성공과 실패, 자녀와 친척간의 화목한 관계 또는 갈등관계, 이웃과의 관계, 일반적·정치적 상황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배숙경, 2002 재인용).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자각”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WHO,1993; 전현옥, 2003 재인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에서는 ‘한국인의 삶과 질의 과제’를 통하여 삶의 질이란 인간생활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의미로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 또는 행복감을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삶의 질과 유사한 개념으로 안녕(well-being), 복



지(welfare),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 생활수준(standard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 being), 생활의 질로 표현하였다.

노인의 삶은 삶의 만족감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써 한 개인이 늙어간다는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김경숙, 2004), 한 개인이 늙어 간다는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김진미, 2001). 또한 노후생활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의 의미인 생활만족도는 노인이 노후생활에서 인생의 풍요함을 경험하는 정도, 과단선과 용기에 대한 민감도, 어떠한 목표에 대한 욕망과 성취와의 일치 정도, 행복을 느끼고 낙관적인 기분을 갖는 정도, 또한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자아를 높게 갖는 정도에 따라서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이평숙 외, 1998).

고승덕(1995)과 손덕옥은 노년기에 있어서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건강이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고(안경숙, 2002 재인용), 이가옥 등(2000)은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균형 있게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질 높은 삶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으로 미루어보아 노인의 삶의 질이란 노인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만족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되는 주관적 개념이다.

## 2) 노년기 삶의 질 관련 요인

노인의 삶의 질은 심리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여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Havighurst(1961)와 Neugarten(1961)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노인

자신의 특성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족형태, 결혼상태, 직업, 건강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 Toseland 와 Sykes(1977)의 연구에서도 활동, 경제적 상태, 건강이 노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활동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유인교, 2002 재인용). 서병숙(1994)은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인 보장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 유지,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의 접촉, 적절한 여가 생활의 추구 등이 노후 삶의 만족의 주요 변인으로 보았다.

안효철(2004)은 삶의 질 구성요소로 건강, 물질적 복리, 심리·정서적 안녕감, 가족관계, 여가 생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로 구분하였고, 김애련(2001)은 신체적·육체적 건강과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박수진(2003)은 교육수준, 종교생활, 배우자유무, 경제적 지위가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소라고 하였다.

최혜경(1984)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결혼상태, 건강, 계층, 은퇴 및 경제생활, 주거 및 물리적 환경, 사회관계, 가족관계를, 김경숙(2004)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사항, 건강, 소득 및 경제활동, 일상생활과 여가로 구분하였다.

안경숙(2002)은 노년기 삶의 질 구성요소로 신체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및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요소들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노년기의 삶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삶의 질 관련 요인은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노년기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일반적요인과 신체적 건강, 경제적 상태, 심리적 요인, 일과 여가, 사회적 관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 (1) 일반적 요인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배우자와 종교의 유무, 거주형태와 거주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의 개념은 가정에서의 노동 분배에 기초를 두고, 남자는 직업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고 여자는 주로 가정 안에서의 역할에 의해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지만 최근까지도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의한 행동규제는 교육·양육 과정을 통한 성역할 사회화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남녀 간의 일반적 능력, 지능의 차이, 성격과 사회적 역할의 차이, 권리와 의무의 차이, 평등과 불평등의 논란 등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김 연, 2001).

그러나 반면에 Liang(1982)이나 Edwards 와 Klemmack(1973)이 지적한 것처럼 성별과 삶의 만족도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차이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배숙경, 2002 재인용).

Cutler(1979)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이나 친구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는 반면, 건강이나 가족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건강상태나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겠다. 그러나 Palmore & Kivett(1979)가 실시한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충선, 1998 재인용).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절망과 고독 이외에 경제적 박탈감, 사회 관계망의 감소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원인이 된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의 경우 심리적 적응도나 행복감 또는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 사망률이나 자살률은 더 낮으며, 정신질환도 더 적게 나타난다고 한다(유인교, 2002).

노인에게 있어 종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와 복지 서비스의 제

공으로 고독감과 소외감 감소에 기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의 종교 활동 참여도가 높으며 따라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1987)과 신효식·서병숙(1992)의 연구에서는 종교의 유무가 생활만족도는 물론 가족의 결속도를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전체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가족의 거주 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Johnson(1978)은 노인에게 있어 원만한 가족관계는 노인의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처기술을 육성하도록 해 준다고 하였고, Bengston, Olander와 Hodddad(1976)는 노인과 그 자녀의 결속이 강할수록 노인의 복지감은 향상된다고 하였다. 특히 Quinn(1983)의 연구에 의하면 노년기 부모와 성인기 자녀간의 애정, 의사소통, 부양만족, 가치관의 일치 등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 때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서정은, 1995 재인용).

거주지역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연구의 양에 비해 결과에 대한 합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Lawton, 1982; 김애련, 2001 재인용). 도시 노인은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로 높은 소외감 정도를 경험하고 있고, 공동체 의식의 붕괴로 이기적이고 분절된 도시환경에서 농촌 노인에 비해 낮은 생활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도시는 문화·의료 혜택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도시 노인은 그런 혜택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농촌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주장도 있다.

## (2) 신체적 건강

건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개인의 신체적 독립상태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며, 사회적인 역할수행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다.

노년기의 신체적 노화현상의 변화는 체력과 정력의 쇠퇴, 시력과 청력의 약화, 저항력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활동에 제한을 가져오게 되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삶의 만족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려면 노인은 건강상태가 좋아야 한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에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삶의 질도 높아진다. Liang(1982)은 건강할수록 노인이 자신의 경제생활 및 사회적 활동에 만족하며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송정선(1998)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 (3) 경제적 상태

건강, 여가 등 다른 영역에 대한 도구적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경제적 측면은 물질적 복리로 연결되어 소득이 감소되었을 때 삶의 만족이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을만큼 경제적 요인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수입과 경제적 안정은 노년기의 다양한 삶의 활동영역을 넓혀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박경란(1988)의 연구에서 노인은 실제 경제 상태보다는 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인 개개인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른 상대적인 것으로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여부라고 하였다. 즉 소득의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경제적으로 만족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 (4) 심리적 요인

삶의 질은 건강상태나 경제적 상태 등 객관적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

을 받기도 하지만 노인의 심리상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행복은 객관적인 외부적 요인보다는 외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신념체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Diener, 1993).

노년기에는 신체적 노화와 함께 경제능력 감소, 사회적 관계에서의 다양한 상실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으로 어느 때보다도 애정이나 친밀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측면의 불안감이 있으며, Rosenberg(1965)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많이 가질수록 불안이나 우울감 등의 정서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낮다고 한다.

## (5) 일과 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가라는 개념은 일과 반대되는 의미로 인식되어 있지만 여가란 노동과 반대되거나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며 일하지 않을 때의 자유시간으로 아무런 의무가 따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김숙자, 2000).

우리나라 노인들은 일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온 세대로 질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여가가 일과 구분되어 당면한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고 여가를 위해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경제적 책임에서 벗어나 일과 여가가 동일 개념으로 인식되어 신체적, 심리적 안녕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여가정책이 제대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 (6) 사회적 관계

사회적 활동은 가족, 친척, 친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루게 되며, 이러한 상호관계를 통해 삶의 보람을 찾음으로써 주관적 만족도를 높여준다.

노년기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지만 친구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노인은 그들의 자녀나 친척, 친구 등에게 상호 의존하기 쉽고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친구는 노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원이 된다고 하였다(Harel & Deimling, 1984). 이러한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위안, 충고, 애정, 칭찬, 물질적 원조와 서비스 등을 가리키며 대체로 한 개인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관계망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친척, 친구, 동료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애정적 상호의존과 연결을 통해 지칭하는 다차원적 속성을 말한다. 이러한 속성은 상호 우호적이고 자발적인 관계로써 노년기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봉재, 2001).

이와 같이 노인의 삶의 질은 다양한 변인, 즉 성별이나 연령, 배우자와 종교의 유무, 거주지역 및 거주형태,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활동 상태나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요인, 평소의 여가시간 활용 및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 직계가족이 지각하는 노인의 삶의 질이 어떠한가를 알아볼 것이다.

## 5.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보면 김경동(1984)은 삶의

질을 물리적, 경제적, 신체적인 면과 함께 심리적으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외적 조건과 내적 만족의 향상을 뜻한다고 하였으며, 박성복(1997)은 개인 및 집단이 향유하는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가치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승덕(1996)은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에서 삶의 질이란 신체적, 전인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채수원(1992)은 노인의 삶의 질을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이라고 정의하고, 하위영역으로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정서상태, 신체상태, 이웃간의 관계, 가족관계로 구분하였다.

김태현(1998) 등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노인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은퇴 후에는 하위계층은 경제적인 문제가, 중·상층은 은퇴 후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 노인들은 여가활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참여도 역시 매우 적다고 하였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들을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성별에 따라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Spreitzer & Snyder(1974)의 연구나 김명자(1982), 이우복(1993), 고승덕(1996)의 연구에서는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여성노인의 역할상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은 김재인(1987)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진봉국(1993), 원영희(1995), 고승덕(1996), 박은숙(1998), 김태현 외(1998), 송정선(1998)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의 증가는 사회에서의 은퇴로 인한 여가 시간은 증가하나 건강상태에 따른 여가 활동 범위가 좁



아지므로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홀로 된 노인보다 정신적 질환이나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명자, 1982, 김태현, 1981, Riley & Foner, 1968; Shanas 와 Townsemd, 1968), 김애련(2001)은 종교가 있는 노인이 정신건강, 자존감,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 노년기의 상실감을 인정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종숙(1987)은 거주지역에 대하여 지역간 차이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보선·유용식(2002)은 제주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정신건강과 사회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남성노인은 여가활동과 신체적 건강상태, 높은 정서적 지지정도가, 여성노인은 연령이 많을수록, 용돈이 있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삶의 질을 인식한다고 하였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가족 중 65세 이상의 부모가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30대 이상의 기혼인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무선표집하여 실시하였다. 부친과 모친이 모두 생존해 계시는 응답자는 한 분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에 응하게 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192부를 회수하였으며, 무응답으로 인해 통계처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응답지 7부를 제외한 185부를 분석하였다.



<표 Ⅲ-1> 응답자 현황

연령 성별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명)
남	38	30	8	3	79
여	50	41	14	1	106
합계	88	71	22	4	185

####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설문조사 방법으로, 연구 도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이론과 윤선이(2002), 김진미(2001)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작성하였고 연구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 5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도구의 하위요인은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심리적 요인, 일과 여가, 사회적 관계 등 5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0.93이며 각 영역별 문항과 신뢰도는 다음의 <표 III-2>와 같다.

<표 III-2>노인의 삶의 질 하위요인과 문항분류

하위영역 \ 문항	문 항 번 호	문항수	Cronbach $\alpha$
신체적 건강	1, 2, 3, 4, 5, 6, 7, 8*, 9, 10, 11*	11	.84
경제적 상태	12, 13, 14*, 15*, 16, 17	6	.74
심리적 요인	18, 19, 20, 21, 22, 23, 24	7	.93
일과 여가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0	.66
사회적 관계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23	.90

\*는 역산처리문항임

윤선이(2002), 김진미(2001)의 연구에서는 노인이 직접 응답하는 형식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노인의 가족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는 측정행태를 취했다. 채점은 문항에 따라서 2점~5점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13.0 Program을 활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수는 192명이었으나 통계처리에 사용된 대상자는 185명이다. 통계 처리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1>에 의하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남성은 42.7%, 여성은 57.3%로 여성 응답자의 수가 14.6% 많았으며,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각각 45.9%, 38.9%로 비슷하지만 50대 이상은 15.2%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노인과의 동거여부는 동거한다는 응답자가 29.7%, 따로 산다는 응답이 69.7%의 비율로 2배 이상의 응답자가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족 중 노인의 성별은 남성이 9.2%, 여성이 36.8%로 여성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고 부모님 모두가 생존해 계신다는 응답자도 53.5%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사회인구학적 특성

문항	구분	빈도	%
성별	남	79	42.7
	여	106	57.3
연령대	30대	85	45.9
	40대	72	38.9
	50대	24	13.0
	60대	4	2.2
동거여부	예	55	29.7
	아니오	129	69.7
노인의 성별	남	17	9.2
	여	68	36.8
	두분 모두	99	53.5
노인의 연령대	65~74	100	54.1
	75~84	59	31.9
	85세 이상	26	14.1
종교 유무	있다	130	70.3
	없다	52	28.1
	무응답	3	1.6
배우자 유무	있다	109	58.9
	없다	76	41.1
거주지역	제주시	74	40.0
	서귀포시	39	21.1
	북제주군	34	18.4
	남제주군	24	13.0
	기타	14	7.6
거주형태	혼자 산다	32	17.3
	결혼한 아들과 함께	55	29.7
	노부부만 산다	58	31.4
	결혼한 딸과 함께	9	4.9
	혼인 전 자녀와 함께	25	13.5
	기타	6	3.2

노인의 연령대는 65~74세가 54.1%, 75세 이상이 46.0%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의 연령대중 30~40대가 84.8%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종교 유무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70.3%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8.1%만이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다.

배우자 유무도 58.9%와 41.1%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이 61.1%,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31.4%로 응답자의 2배 가까운 수가 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거주형태는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살고 있다는 응답이 48.7%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응배(2000)의 연구에서와 같이 노인들이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노부부만 살고 싶다고 응답(46.2%)한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녀 세대간의 독립적 특성을 유지하려는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사는 노인이 29.7%, 결혼한 딸과 함께 사는 노인이 4.9%, 아직 미혼인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 13.5%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위 선행연구(박응배 2000)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한 42.1%와 관련이 있어 보이며 이는 혼인한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전통 때문이라고 보인다.

## 2. 가설검증

가설 1.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직계가족의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직계가족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2>와 같다.

<표 IV-2> 직계가족의 성별에 따른 삶의 질 분석 결과

통계치 삶의 질	성별	N	M	SD	t
건강상태	남자	79	3.26	.64	1.880
	여자	106	3.08	.65	
경제적 상태	남자	79	3.01	.68	1.137
	여자	106	3.13	.75	
심리적 요인	남자	79	3.37	.72	2.009*
	여자	106	3.15	.75	
일과 여가	남자	79	3.05	.58	.173
	여자	106	3.06	.45	
사회적 관계	남자	79	3.20	.58	.289
	여자	106	3.17	.60	

\*  $p < .05$

<표 IV-2>의 직계가족의 성별에 따른 삶의 질은 심리적 요인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의 심리적 요인은 3.37, 여자의 심리적 요인은 3.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2.009$ ,  $p < .05$ ). 그러나 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계가족 중 아들이나 사위가 딸·며느리보다 노인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감정의 변화에 치우치지 않고 폭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남성의 특성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설 1-2.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직계가족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3>과 같다.

<표 IV-3> 직계가족의 연령에 따른 삶의 질 분석 결과

통계치 삶의 질	연령	N	M	SD	t(F)
건강상태	30대	85	3.19	.64	1.656
	40대	72	3.20	.66	
	50대 이상	28	2.95	.60	
	전 체	185	3.16	.65	
경제적 상태	30대	85	3.11	.79	0.360
	40대	72	3.03	.69	
	50대 이상	28	3.14	.60	
	전 체	185	3.08	.72	
심리적 요인	30대	85	3.28	.75	1.945
	40대	72	3.30	.70	
	50대 이상	28	2.99	.82	
	전 체	185	3.24	.75	
일과 여가	30대	85	3.07	.55	0.029
	40대	72	3.05	.46	
	50대 이상	28	3.05	.49	
	전 체	185	3.06	.51	
사회적 관계	30대	85	3.20	.59	0.384
	40대	72	3.20	.63	
	50대 이상	28	3.09	.48	
	전 체	185	3.18	.59	

가설 1-2는 위와 같이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분석결과, 삶의 질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등 전반적인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하여 직계가족의 연령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설 2.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그들의 연령, 종교·배우자 유무,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4>와 같다.



<표 IV-4>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질 분석 결과

통계치 삶의 질	연령	N	M	SD	t
건강상태	74세이하	100	3.32	.62	3.705***
	75세이상	85	2.97	.63	
경제적 상태	74세이하	100	3.12	.75	0.819
	75세이상	85	3.04	.69	
심리적 요인	74세이하	100	3.28	.73	0.710
	75세이상	85	3.20	.76	
일과 여가	74세이하	100	3.08	.52	0.527
	75세이상	85	3.04	.49	
사회적 관계	74세이하	100	3.27	.56	2.304*
	75세이상	85	3.08	.60	

\* p<.05 \*\*\* p<.001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관계에서 각각 0.1% 수준과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건강상태의 경우 74세 이하 집단(M=3.32)이 75세 이상 집단(M=2.97)보다 높게 나타났고( $t=3.705$ ,  $p<.001$ ), 사회적 관계의 경우 74세 이하 집단(M=3.27)이 75세 이상 집단(M=3.08)보다 높게 나타났다( $t=2.304$ ,  $p<.05$ ). 그러나 경제적 상태, 심리적 요인, 일과 여가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젊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보선·유용식(2002)의 신체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불만족스러움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응력과 정신적 여유로움으로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윤선이(200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가설 2-2.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종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5>와 같다.

종교 유무에 따른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종교가 있는 집단(M=3.23)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M=2.98)보다 신체적 건강상태에서 높은 삶의 질을 보였으며( $t=2.413$ ,  $p<.05$ ), 심리적 요인도 역시 종교가 있고(M=3.32) 없음(M=3.07)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111$ ,  $p<.05$ ).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종교가 있는 집단(M=3.26)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M=3.01)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647$ ,  $p<.01$ ). 그러나 경제적 상태와 일과 여가 영역은 종교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V-5> 종교 유무에 따른 삶의 질 분석 결과

삶의 질	통계치		N	M	SD	t
	종교유무					
건강상태	유		130	3.23	.64	2.413*
	무		55	2.98	.65	
경제적 상태	유		130	3.12	.72	1.180
	무		55	2.99	.73	
심리적 요인	유		130	3.32	.72	2.111*
	무		55	3.07	.79	
일과 여가	유		130	3.07	.48	0.617
	무		55	3.02	.57	
사회적 관계	유		130	3.26	.55	2.647**
	무		55	3.01	.63	

\* p<.05, \*\* p<.01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있음으로써 삶의 질은 물론 가족의 결속도까지 강화될 수 있다는 김수연(1987)의 연구와 일치하며, 종교 활동이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윤선이(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가설 2-3.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배우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6>과 같다.

<표 IV-6>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삶의 질 분석 결과

통계치 삶의 질	배우자 유무	N	M	SD	t
건강상태	유	109	3.26	.66	2.554*
	무	76	3.01	.60	
경제적 상태	유	109	3.16	.71	1.669
	무	76	2.98	.73	
심리적 요인	유	109	3.38	.81	3.065**
	무	76	3.05	.60	
일과 여가	유	109	3.12	.52	1.945*
	무	76	2.97	.48	
사회적 관계	유	109	3.29	.61	3.071**
	무	76	3.03	.53	

\* p<.05, \*\* p<.01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집단(M=3.26)은, 배우자가 없는 집단(M=3.01)보다 높은 삶의 질을 보였으며(t=2.554, p<0.5), 심리적 요인 역시 배우자의 유(M=3.38), 무(M=3.05)가 삶의 질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3.065, p<0.1). 일과 여가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M=3.12) 배우자가 없는 집단(M=2.97)보다 높은 삶의 질을 보였으며(t=1.945, p<0.5), 사회적 관계도 배우자가 있는 집단(M=3.29)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M=3.03)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071, p<0.1). 그러나 경제적 상태의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 결과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높은 삶의 질을 보인다는 김양순(2003), 김연희(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있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하며, 배우자와 함께 여가를 즐기며 노후를 보냄으로써 생활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설 2-4.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7>과 같다.

거주지역에 따른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우선 심리적 요인은 제주도의 4개 시군을 비교한 결과 남제주군(M=3.44), 제주시(M=3.37), 서귀포시(M=3.14), 북제주군(M=3.11)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398$ ,  $p<0.5$ ).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남제주군이 3.57로 가장 높고 제주시(M=3.21), 서귀포시(M=3.08), 북제주군(M=2.99) 순으로 나타났다( $t=4.200$ ,  $p<0.1$ ). 각 지역 간 차이를 밝히기 위해 Scheffe 검증한 결과 서귀포시보다 남제주군이, 북제주군보다 남제주군의 사회적 관계 영역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은 지역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만 두 지역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심리적 요인, 일과 여가 영역에 대한 차이는 밝혀지지 않았다.

위의 결과는 거주지역이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는 않지만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정서영역의 삶의 질이 높다는 김유경(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며, 특산물 재배를 많이 하는 남제주군이 수놓음을 통하여 마을구성원간 결속력이 높고, 도시보다는 공동으로 진행하는 마을 행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V-7> 거주 지역에 따른 삶의 질 분석 결과

통계치 삶의 질	거주지	N	M	SD	t(F)	Scheffe
건강상태	제주시(A)	74	3.27	.59	1.680	
	서귀포시(B)	39	3.07	.74		
	북제주군(C)	34	3.02	.59		
	남제주군(D)	24	3.26	.58		
	무응답(E)	14	2.96	.84		
	전 체	185	3.16	.65		
경제적 상태	제주시(A)	74	2.99	.64	1.935	
	서귀포시(B)	39	3.31	.69		
	북제주군(C)	34	3.10	.69		
	남제주군(D)	24	3.14	.86		
	무응답(E)	14	2.80	.90		
	전 체	185	3.08	.72		
심리적 요인	제주시(A)	74	3.37	.69	2.398*	
	서귀포시(B)	39	3.14	.77		
	북제주군(C)	34	3.11	.80		
	남제주군(D)	24	3.44	.68		
	무응답(E)	14	2.86	.82		
	전 체	185	3.24	.75		
일과 여가	제주시(A)	74	3.15	.47	2.292	
	서귀포시(B)	39	3.09	.41		
	북제주군(C)	34	2.84	.57		
	남제주군(D)	24	3.04	.49		
	무응답(E)	14	3.04	.68		
	전 체	185	3.06	.51		
사회적 관계	제주시(A)	74	3.21	.53	4.200**	B<D C<D
	서귀포시(B)	39	3.08	.61		
	북제주군(C)	34	2.99	.61		
	남제주군(D)	24	3.57	.58		
	무응답(E)	14	3.11	.54		
	전 체	185	3.18	.59		

\* p<.05, \*\* p<.01

##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 요약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증가되는 노인인구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또한 낮은 출산율로 인한 젊은 층의 인구 감소는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하여 직계가족들이 보고 느낀 바를 조사하여 보다 효과적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맞춰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직계가족의 성별, 연령별에 따라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그들의 연령과 종교 유무,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직계가족의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노인의 삶의 질은 직계가족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노인의 삶의 질은 직계가족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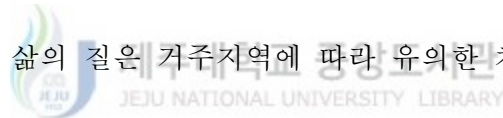
가설 2.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은 그들의 연령, 종교·배우자 유무, 거주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노인의 삶의 질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노인의 삶의 질은 종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노인의 삶의 질은 배우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노인의 삶의 질은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부모가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며 부친과 모친이 모두 생존해 계시는 응답자는 한 분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하게 하였다.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여 직계가족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타당도 검사를 거쳐 조사하였다. 총 200부의 검사지 중 192부를 회수하였고 무응답으로 인해 통계처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검사지 7부를 제외한 18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for Windows 13.0 Program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했다.

이에 따른 응답자들의 결과를 분석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은 심리적 요인 영역에서 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3.37, 여=3.15).

둘째,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은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심리적 요인, 일과 여가, 사회적 관계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질은 건강상태와 사회적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의 경우 74세 이하 집단(M=3.32)이 75세 이상 집단(M=2.97)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관계의 경우 74세 이하 집단(M=3.27)이 75세 이상 집단(M=3.08)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종교 유무에 따른 삶의 질은 종교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건강상태( $t=2.413, p < .05$ ), 심리적 요인( $t=2.111, p < .05$ ), 사회적 관계( $t=2.647, p < .01$ )에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노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삶의 질은 건강상태( $t=2.554, p < .05$ )와 심리적 요인( $t=3.065, p < .01$ ), 사회적 관계( $t=3.071, p < .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적 건강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평균은 3.26,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평균은 3.01로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의미가 있다. 심리적 요인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평균은 3.38과 3.05로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의미가 있게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평균은 3.29, 없는 집단의 평균은 3.03으로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의미가 있다.

여섯째, 노인의 거주지역에 따른 삶의 질은 사회적 관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을 비교한 결과 남제주군이 3.57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M=3.21), 서귀포시

(M=3.08), 북제주군(M=2.99)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를 밝히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제주군이 서귀포시와 북제주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은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을 부양하는 남성가족은 그들의 부모의 삶의 질에 대해서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한다.

둘째, 노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건강상태와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높은 삶의 질을 보인다. 이는 신체적으로 노화가 덜 진행된 노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셋째, 종교가 있는 노인이 심리적·사회적 삶의 질이 높다. 이는 종교가 있음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종교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넷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건강상태와 심리적 요인, 사회적 관계에서 삶의 질을 높게 지각한다. 배우자와 함께 노후를 보내면서 생활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제주도의 4개 시·군 중 남제주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가장 높다. 이는 연령과 관계없이 부지런히 활동하는 제주인의 특성으로 특산물 재배를 많이 하는 남제주군이 수놓음을 통하여 마을구성원간 결속력이 높고, 도시보다는 공동으로 진행되는 마을 행사가 많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론에서 볼 때, 연령이 적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 관계를 잘 하며, 종교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종교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제주도의 4개 시군 중 남제주군의 노인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 관계 영역의 삶의 질이 높으며, 직계가족 중 남성가족이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한다.

제주 지역은 공기, 수질 등 자연환경이 좋고, 나이가 들어도 일하는 노인이 많아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일하는 것이 곧 운동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는 노인이 적은 것으로 보아 노년기의 건강을 위한 운동의 필요성을 실천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렴한 진료체계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예방과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TV시청이나 놀이(장기, 바둑, 화투 등), 독서 등 활동적이지 않은 여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거주지 가까운 곳에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며 여가와 운동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평생 교육차원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노인들이 여생을 의미 있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활동능력이 저하되어 매일의 생활이 무의미하고 즐겁지 못한 노인들의 삶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기관이나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3.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노인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볼 수 있었지만 노인의 입장에서의 삶의 질이 규명되지는 않았다. 노인과 가족을 모두 대상으로 연구를 하여 노인의 입장과 가족의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을 연구하는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병행된다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가족이 지각하는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에 그쳤지만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노인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주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수진(2000). **친인척보호**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고보선·유용식(2002). 제주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겨울호, 49~72. 한국노인복지학회
- 고승덕(1995).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권중돈(2004). **노인복지론**. 학지사
- 김경동 외(1984).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김경숙(2004). **농촌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대한가정학회
- 김미혜·서혜경(2002). **노인복지실천론**. 도서출판 동인
- 김수연(1987).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애련(2001).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김양순(2003).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 김 연(2001). **노인대학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김연희(2002).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김영재(1997).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심리사회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유경(2000). 세대간의 유대관계와 노인이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재인(1987). 후기성인의 사회교육적 학습참여와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탐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종숙(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주수(1974). 가족관계학. 진명출판사
- 김진미(2001).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진영(2002). 제주 장수 노인 인구 현황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주학회지 23집. 제주학회
- 김태중(2002).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김태현(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한국노년학회
- 김향원(1990).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혜숙(2002). 제주도 장수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연구. 제주학회지 23집. 제주학회
- 노유자(1988).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경란(1988).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박성복(1997).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노인교육 및 삶의 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9(2) pp. 101-110. 한국지역개발학회
- 박수진(2003). 노인의 경제생활에 따른 노인학대 정도와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정도.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박용배(2001). 노인복지현황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 박은숙 외(1998).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28(3), 638~649. 한국간호과학회
- 박충선(1990).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여성연구** 8(3)
- 방경자(2005).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노인 무력감완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배숙경(2002).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이용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신학대학교
- 서병숙(1994). **노인연구**. 교문사
- 서정은(1995). **여성노인의 여가활동참여 몰입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송미화(2001).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송재홍(2004). **어울려 사는 제주, 건강한 제주인**. 한국상담학회 제주상담학회 창립 3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상담학회 제주상담학회
- 송정선(1998).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신은정(2004). **조부모손자녀세대의 가족기능과 손자녀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안경숙(2002).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안효철(2004).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원영희(1995). 동·별거형태가 한국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한국노년학회
- 유영주 외(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호 pp145-156. 한국가정관리학회



- 유인교(2002). 노인복지회관의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신학대학교
- 윤선이(2002).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윤진(1986). 성인·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이가옥 외(2000). 노년기 삶의 질: 개념 및 지표구성. 세계노인의 날 기념 학술세미나. 성공회대학교 pp. 7-10. 성공회대학교
- 이동원 외(2002). 한국 가족의 현주소. 학지사
- 이문행(1993). 가족기능성이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봉재(2001). 건강에 관련된 여성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영희(1988).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과 정상가족의 가족기능 비교 연구: 노인가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우복(199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이평숙 외(1998). 노인의 삶의 질 예측모형 구축. 한국노년학 18(3). 한국노년학회
- 이호선(2005). 노인상담. 학지사
- 장인협·최성재(2003).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종미(2003). '가족'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전현옥(2003). 노인의 생의 의미와 삶의 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경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전생애 인간발달). 학지사

- 정원미·최숙자(2003). 노인의 삶의 질 관련요인 분석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제21권 제2호**. 동남보건대학
- 정재임·차영자·김정아(2005). **경북전문대학논문집 제23집**. 경북전문대학
- 조은숙·옥선화(1995). 가족상 연구의 접근법 및 그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1호**. 대한가정학회
- 조진명(1999). **부양서비스가 노인과 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진봉국(1993). **여가활동참여와 생활만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채수원(1991).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최혜경(1984).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통계청(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2001-2050)**서관
- 하은아(2002). **가족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가족개념 인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Edwards, J.N., & O.L. Klemmack(1973)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 : 497-502.
- Harel, Z & Deimling. Social Mental Health: An Empirical Refin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9(6), p742-747, 1984
- Lawton, M.P.(1975)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A revision, *Journal of Gerontology* 30 : 85-89
- Liang, op. cit.; Atchley, op. cit.
- Liang J.(1982)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6 : 100-108
- Schuessler, K.F.,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X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1., 1995

Spreitzer, E. & Synder, E.,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29, 1974

Streib, G.F. & R.W. Beck(1980) Older Families: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2, pp. 205-224



<Abstract>

## A Study on the Life Quality of the Old Residing in Jeju-do<sup>2)</sup>

Seo Jeong-Jo

Major of Counsel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dvisor: Park Tae-Soo**

The extension of average lifespan caused by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improvement of life level increased the number of the old rapidly so Korea already entered to the aging society that the composition ratio of the population of over 65 years old is more than 7.0% in 2000. In case of Korea whose aging society, aged society, and super-aged society are more rapid than them of Europe, USA and Japan, because of the lowest birth rate in the world, it is forecasted that it will approach to aged society in 2018 and its composition ratio of the population of over 65 years old is more than 14% in 2026.

This forecast is making the anxiety about lowered life quality because of various problems occurred in the old age, especially, decline of physical capacity, loss of role and economic capacity in home and society, decline of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isolation.

Although Korea has traditionally maintained the culture that the old parents resided with their sons and daughters because filial piety culture became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aptitude toward parents and moral appropriateness, it shows that the burden to support parents in home or society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change in family structure and family

---

2) It is the master's thesis of the education science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Committee on Education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on August, 2006.

value sense caused by modernization and the decrease of young-aged group caused by the lowered birth rate.

The study has the purpose to survey and analyze what family members in direct line recognize about the life of the old residing in Jeju area and provide the basic material for improving their lives.

In order to attain the above purpose, following study questions were established.

First, how the life quality of the old residing in Jeju is recognized by sex and age of family member in direct line?

Second, which difference the life quality of the old residing in Jeju shows by their age, existence of religion, existence of spouse, and residing area?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Jeju-do citizens whose at least one parent of over 65 years old exists were selected as the survey target and total 185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study. Measurement tool was based on the questionnaires of previous study, modified for the study purpose, and used through appropriateness test. For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t verification and f verification were performed through SPSS computer program.

The study result from the above processes are as follows.

First, the life quality of the old recognized by male family member among family members in direct line was higher than one recognized by female family member.

Second, in the aspect of physical health and social relationship, as the age of the old was low, their life quality was high.

Third, in the aspect of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factor, and social

relationship, as the old have religion, their life quality was high

Fourth, in the aspect of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factor, and social relationship, as the old have spouse, their life quality was high.

Fourth, in the aspect of social relationship, the life quality of the old who reside in Namjeju-gun among 4 cities and counties was higher than other 3 areas.

If synthesizes the above results, it shows that male family member recognizes the life of the old positively, the old whose ages are low and who have religion and spouse shows high life quality in the aspect of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factor, and social relationship, and the old who reside in Namjeju-gun shows high life quality.



# 부 록

<부록 1> 조사설문지 .....	57
<부록 2> 조사통계표 .....	64





6. 어르신은 종교를 가지고 계신가요?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7. 현재 어르신의 배우자 유무는?  
 ① 있다                              ② 없다
8. 어르신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① 제주도                      ② 서귀포시                      ③ 북제주군                      ④ 남제주군
9. 어르신은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 혼자 산다                      ② 결혼한 아들과 함께                      ③ 노부부만 산다  
 ④ 결혼한 딸과 함께                      ⑤ 혼인 전 자녀들과                      ⑥ 복지시설에서  
 ⑦ 의료기관에서                      ⑧ 종교시설에서                      ⑨ 기타(                      )

◆ 어르신의 입장에서 답해주세요.(1~57)

신체적 건강상태



※ 다음은 어르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같은 연령층의 다른 어르신과 비교할 때 건강상태가 좋다.					
2	집근처를 혼자서 잘 돌아다닐 수 있다.					
3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여 무리 없이 먼 여행(2시간 이상)을 할 수 있다.					
4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신다(하루에 10분정도씩 일주일에 3일 이상)					

		①	②	③	④	⑤
		매우 나쁘다	나쁜편 이다	보통 이다	좋은편 이다	매우 좋다
5	어르신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6	어르신의 청력은 어떻습니까?					
7	어르신의 치아는 어떻습니까?					

8.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편찮으신 적이 몇 회 있었습니까?

- ① 없다                      ② 1~2회                      ③ 3~4회                      ④ 5회 이상

9. 어르신께서는 일상적으로 보조기(지팡이, 보청기, 휠체어, 틀니 등)를 사용하십니까?

- ① 사용한다                      ② 사용하지 않는다

10. 어르신께서는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나 보약 혹은 건강식품을 드십니까?

- ① 아니다                      ② 그렇다

11. 어르신께서는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경제적 상태**

12. 어르신께서는 생활비 또는 용돈을 주로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① 일, 직업                      ② 같이 사는 아들, 며느리                      ③ 손녀, 손자  
④ 집세, 저축, 증권의 이익배당                      ⑤ 그 외의 아들, 며느리  
⑥ 연금, 퇴직금                      ⑦ 딸, 사위                      ⑧ 생활보호, 노령수당  
⑨ 기타(                      )

13. 어르신께서는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라고 느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① 영농비(농기구관리, 가축사료, 퇴비)                      ② 공과금                      ③ 식비  
④ 집유지, 관리비(집세, 수리비)                      ⑤ 의료비                      ⑥ 교통비  
⑦ 여가선용 및 유흥비                      ⑧ 의류비                      ⑨ 기타(                      )

14. 어르신께서는 긴급상황(입원, 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다음은 어르신의 경제적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5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16	현재의 경제상태는 10년 전과 비교해 좋아졌다.					
17	현재의 경제상태에 만족한다.					

**심리적 요인**

※ 다음은 어르신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8	마음이 평온하다.					
19	지나간 인생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신다.					
20	기분 좋게 사시는 편이다.					
21	생활에 활력이 넘치신다.					
22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23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끼신다.					
24	자신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					

**일과 여가**

25. 어르신께서는 평상시에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십니까?

- ① 가사일                      ② 농업                      ③ 상업                      ④ 서비스업  
 ⑤ 봉사활동                  ⑥ 어업                      ⑦ 기타(                      )  
 ⑧ 일거리가 없다

※ 일을 하신다면?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6	현재의 일을 통해 충분한 생활비를 번다					
27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					

28. 일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께서는 위에서 여쭙보았던 내용에 비추어서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9. 어르신께서는 평소에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자주 하는 여가 3개만 선택)

- ① 교제 및 만남(종교활동)      ② 놀이 및 오락(장기, 바둑, 화투)  
③ TV 시청                              ④ 독서 및 공부(신문, 잡지, 노인학교)  
⑤ 산책 및 행락                      ⑥ 여행 및 관광(온천)  
⑦ 취미생활(서예, 원예 등)      ⑧ 운동(게이트볼, 배드민턴)  
⑨ 쇼핑(시장보기 예외)              ⑩ 기타

※ 여가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0	현재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					
31	현재의 여가활동을 같이 즐길 사람이 주위에 많다					
32	여가를 즐길 장소나 시설이 부족하다					
33	여가를 즐기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34. 현재 여가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

35. 어르신께서는 몇 남 몇 녀를 두셨습니까? ( )남 ( )녀  
 36.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몇 명입니까? ( )명

※ 다음은 어르신께서 주위의 사람들과 주로 받는 도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7	가족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 받는다					
38	친척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 받는다					
39	친구나 이웃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 받는다					
40	따로 사는 가족들과 자주 만난다					
41	친척들과 자주 만난다					
42	친구나 이웃들과 자주 만난다					
43	가족과 서로 의논상대나 말상대가 된다					
44	친척들과 서로 의논상대나 말상대가 된다					
45	친구나 이웃들과 서로 의논상대나 말상대가 된다					
46	가족들과 금전적 도움이나 물질적 도움을 주고 받는다					
47	친척들과 금전적 도움이나 물질적 도움을 주고 받는다					
48	친구나 이웃들과 금전적 도움이나 물질적 도움을 주고 받는다					
49	가족들과 집안일 돕기나 병간호 등의 도움을 주고 받는다					
50	친척들과 집안일 돕기나 병간호 등의 도움을 주고 받는다					
51	친구나 이웃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 다음과 같은 단체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가끔 참여한다	자주 참여한다
52	노인정 또는 경로당					

53	노인학교					
54	친목계					
55	종교단체					
56	마을 단체관광					

57. 어르신께서 느끼시는 행복감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행복하다                      ② 행복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행복하지 않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2> 통계표

<표 1> 일반적 건강상태

문항	구분	빈도	%
같은 연령층의 다른 어르신과 비교할 때 건강상태가 좋다	정말 그렇다	27	14.6
	그렇다	57	30.8
	보통이다	65	35.1
	그렇지 않다	28	15.1
	전혀 그렇지 않다	8	4.3
집 근처를 혼자서 잘 돌아다닐 수 있다	정말 그렇다	77	41.6
	그렇다	75	40.5
	보통이다	17	9.2
	그렇지 않다	10	5.4
	전혀 그렇지 않다	6	3.2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여 무리 없이 먼 여행(2시간 이상)을 할 수 있다.	정말 그렇다	62	33.5
	그렇다	69	37.3
	보통이다	25	13.5
	그렇지 않다	16	8.6
	전혀 그렇지 않다	13	7.0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정말 그렇다	41	22.1
	그렇다	46	24.9
	보통이다	44	23.8
	그렇지 않다	33	17.8
	전혀 그렇지 않다	21	11.4

<표 2> 시력·청력·치아의 건강상태

문항	구분	빈도	%
어르신의 시력은?	매우 좋다	19	10.2
	좋은편이다	47	25.4
	보통이다	72	38.9
	나쁜편이다	43	23.2

	매우 나쁘다	4	2.2
어르신의 청력은?	매우 좋다	20	10.8
	좋은편이다	64	34.6
	보통이다	71	38.4
	나쁜편이다	26	14.1
	매우 나쁘다	4	2.2
어르신의 치아는?	매우 좋다	10	5.4
	좋은편이다	34	18.4
	보통이다	62	33.5
	나쁜편이다	64	35.1
	매우 나쁘다	14	7.6

<표 3> 1년 동안 편찮으셨던 경험

문 항	구 분	빈 도	%
편찮으신 경험	1~2회	75	40.5
	3~4회	18	9.7
	5회 이상	23	12.4
	없다	69	37.3

<표 4> 보조기 사용 여부

문 항	구 분	빈 도	%
일상적인 보조기 사용 여부	사용한다	55	29.7
	사용하지 않는다	130	70.3

<표 5> 건강을 위한 보조식품 섭취여부

문 항	구 분	빈 도	%
건강을 위한 보조식품 섭취여부	그렇다	110	59.5



	아니다	75	40.5
--	-----	----	------

<표 6>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정도

문 항	구 분	빈 도	%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정도	매우 만족한다	12	6.5
	만족하는 편이다	48	25.9
	보통이다	71	38.4
	만족하지 않는다	42	22.7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2	6.5

<표 7> 생활비 또는 용돈 조달(복수 응답)

문 항	빈 도	%
일, 직업	92	36.5
같이 사는 아들, 며느리	29	11.5
손녀, 손자	5	2.0
집세, 저축, 증권의 이익배당	35	13.9
그 외의 아들 며느리	41	16.3
연금, 퇴직금	23	9.1
딸, 사위	16	6.3
생활보호, 노령수당	5	2.0
기타	6	2.4

<표 8> 경제적 부담요인(복수 응답)

문 항	빈 도	%
영농비(농기구관리, 가축사료, 퇴비)	34	13.8
공과금	29	11.7
식비	12	4.9
집유지, 관리비(집세, 수리비)	33	13.4
의료비	72	29.1
교통비	4	1.6
여가선용 및 유흥비	31	12.6
의류비	2	0.8
기타	30	12.1

<표 9>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 여부

문 항	구 분	빈 도	%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 여부	매우 그렇다	23	12.4
	그런편이다	70	37.8
	보통이다	52	28.1
	그렇지 않은 편이다	31	16.8
	전혀 그렇지 않다	9	4.9

<표 10> 경제적 상태

문 항	구 분	빈 도	%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매우 그렇다	5	2.7
	그렇다	29	15.7
	보통이다	83	44.9
	그렇지 않다	49	26.5
	전혀 그렇지 않다	19	10.3
현재의 경제상태는 10년 전과 비교해 좋아졌다	매우 그렇다	8	4.3
	그렇다	30	16.2
	보통이다	77	41.6

	그렇지 않다	57	30.8
	전혀 그렇지 않다	13	7.0
현재의 경제상태에 만족한다	매우 그렇다	11	5.9
	그렇다	38	20.5
	보통이다	75	40.5
	그렇지 않다	49	26.5
	전혀 그렇지 않다	12	6.5

<표 11> 심리적 상태

문항	구분	빈도	%
마음이 평온하다	매우 그렇다	10	5.4
	그렇다	58	31.4
	보통이다	77	41.6
	그렇지 않다	37	20.0
	전혀 그렇지 않다	3	1.6
지나간 인생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그렇다	9	4.8
	그렇다	57	30.8
	보통이다	64	34.6
	그렇지 않다	50	27.0
	전혀 그렇지 않다	5	2.7
기분 좋게 사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7.6
	그렇다	67	36.2
	보통이다	71	38.4
	그렇지 않다	27	14.6
	전혀 그렇지 않다	6	3.2
생활에 활력이 넘친다	매우 그렇다	12	6.5
	그렇다	49	26.5
	보통이다	76	41.1
	그렇지 않다	42	22.7
	전혀 그렇지 않다	6	3.2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매우 그렇다	20	10.8
	그렇다	58	31.4

	보통이다	79	42.7
	그렇지 않다	24	13.0
	전혀 그렇지 않다	4	2.2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낀다	매우 그렇다	20	10.8
	그렇다	58	31.4
	보통이다	76	41.1
	그렇지 않다	28	15.1
	전혀 그렇지 않다	3	1.6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25	13.5
	그렇다	67	36.2
	보통이다	68	36.8
	그렇지 않다	24	13.0
	전혀 그렇지 않다	1	0.5

<표 12> 평상시에 종사하는 일

문항	빈도	%
가사일	23	12.4
농업	78	42.2
상업	11	5.9
서비스업	14	7.6
봉사활동	2	1.1
어업	2	1.1
기타	9	4.9
일거리가 없다	46	24.8

<표 13> 일을 하신다면?(해당자만 응답)

문항	구분	빈도	%
현재의 일을 통해 충분한 생활이 된다	매우 그렇다	12	10.3
	그렇다	38	32.8
	보통이다	40	34.5

	그렇지 않다	21	18.1
	전혀 그렇지 않다	5	4.3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	매우 그렇다	5	4.3
	그렇다	36	31.0
	보통이다	43	37.1
	그렇지 않다	24	20.7
	전혀 그렇지 않다	8	6.9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 여부	매우 그렇다	1	0.9
	그렇다	48	41.4
	보통이다	50	43.1
	그렇지 않다	14	12.1
	전혀 그렇지 않다	3	2.6

<표 14> 여가시간 활용방법(복수응답)

문 항	빈 도	%
교제 및 만남(종교 활동)	56	14.9
놀이 및 오락(장기, 바둑, 화투)	37	9.8
TV 시청	123	32.6
독서 및 공부(신문, 잡지, 노인학교)	25	6.6
산책 및 행락	42	11.1
여행 및 관광	19	5.0
취미생활(서예, 원예 등)	8	2.1
운동(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23	6.1
쇼핑(시장보기 제외)	14	3.7
기 타	3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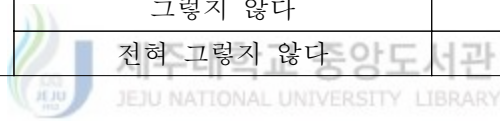
<표 15> 여가생활에 관한 질문

--	--	--	--

문항	구분	빈도	%
현재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	매우 그렇다	25	13.5
	그렇다	60	32.4
	보통이다	66	35.7
	그렇지 않다	28	15.1
	전혀 그렇지 않다	6	3.2
여가활동을 같이 즐길 사람이 주위에 많다	매우 그렇다	11	5.9
	그렇다	48	25.9
	보통이다	68	36.8
	그렇지 않다	48	25.9
	전혀 그렇지 않다	10	5.4
여가를 즐길 장소나 시설이 부족하다	매우 그렇다	12	6.5
	그렇다	56	30.3
	보통이다	69	37.3
	그렇지 않다	44	23.8
	전혀 그렇지 않다	4	2.2
여가를 즐기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매우 그렇다	8	4.3
	그렇다	45	24.3
	보통이다	68	36.8
	그렇지 않다	53	28.6
	전혀 그렇지 않다	11	5.9
현재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여부	매우 그렇다	5	2.7
	그렇다	49	26.5
	보통이다	93	50.3
	그렇지 않다	29	15.7
	전혀 그렇지 않다	9	4.9

<표 16> 사회적 관계에서의 연락 빈도

문항	구분	빈도	%
가족	매우 그렇다	49	26.5
	그렇다	99	53.5
	보통이다	28	15.1
	그렇지 않다	8	4.3
	전혀 그렇지 않다	1	0.5
친척	매우 그렇다	26	14.1
	그렇다	77	41.6
	보통이다	54	29.1
	그렇지 않다	24	13.0
	전혀 그렇지 않다	4	2.2
친구·이웃	매우 그렇다	28	15.1
	그렇다	85	45.9
	보통이다	54	29.2
	그렇지 않다	16	8.6
	전혀 그렇지 않다	2	1.1



<표 17> 만남의 빈도

문항	구분	빈도	%
가족	매우 그렇다	26	14.1
	그렇다	56	30.3
	보통이다	66	35.7
	그렇지 않다	35	18.9
	전혀 그렇지 않다	2	1.1
친척	매우 그렇다	12	6.5
	그렇다	55	29.7
	보통이다	71	38.3
	그렇지 않다	43	23.2
	전혀 그렇지 않다	4	2.2
친구·이웃	매우 그렇다	24	13.0
	그렇다	79	42.7

	보통이다	64	34.6
	그렇지 않다	13	7.0
	전혀 그렇지 않다	5	2.7

<표 18> 의논 상대나 말상대

문 항	구 분	빈 도	%
가 족	매우 그렇다	25	13.5
	그렇다	82	44.3
	보통이다	65	35.1
	그렇지 않다	10	5.4
	전혀 그렇지 않다	3	1.6
친 척	매우 그렇다	12	6.5
	그렇다	59	31.9
	보통이다	73	39.5
	그렇지 않다	37	20.0
	전혀 그렇지 않다	4	2.0
친구·이웃	매우 그렇다	15	8.1
	그렇다	67	36.2
	보통이다	80	43.2
	그렇지 않다	19	10.3
	전혀 그렇지 않다	4	2.2

<표 19> 금전적 도움 또는 물질적 도움

문 항	구 분	빈 도	%
가 족	매우 그렇다	16	8.6
	그렇다	65	35.1
	보통이다	69	37.3
	그렇지 않다	31	16.8
	전혀 그렇지 않다	4	2.2
친 척	매우 그렇다	6	3.2
	그렇다	21	11.4
	보통이다	63	34.1
	그렇지 않다	75	40.5



	전혀 그렇지 않다	20	10.8
친구·이웃	매우 그렇다	4	2.2
	그렇다	18	9.7
	보통이다	71	38.4
	그렇지 않다	71	38.4
	전혀 그렇지 않다	21	11.4

<표 20> 집안일 돕기 또는 병간호 등의 도움

문항	구분	빈도	%
가족	매우 그렇다	19	10.3
	그렇다	72	38.9
	보통이다	63	34.0
	그렇지 않다	24	13.0
	전혀 그렇지 않다	7	3.8
친척	매우 그렇다	7	3.8
	그렇다	33	17.8
	보통이다	66	35.6
	그렇지 않다	64	34.6
	전혀 그렇지 않다	15	8.1
친구·이웃	매우 그렇다	10	5.4
	그렇다	55	29.7
	보통이다	85	45.9
	그렇지 않다	23	12.4
	전혀 그렇지 않다	12	6.5

<표 21> 단체 활동 참여 여부

문항	구분	빈도	%
노인정 또는 경로당	자주 참여한다	34	18.4
	가끔 참여한다	38	20.5
	보통이다	24	12.9
	참여하지 않는다	51	27.6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38	20.5

노인학교	자주 참여한다	19	10.3
	가끔 참여한다	17	9.2
	보통이다	28	15.1
	참여하지 않는다	64	34.6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57	30.8
친목계	자주 참여한다	45	24.3
	가끔 참여한다	25	13.5
	보통이다	55	29.7
	참여하지 않는다	36	19.5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4	13.0
종교단체	자주 참여한다	41	22.2
	가끔 참여한다	30	16.2
	보통이다	47	25.4
	참여하지 않는다	31	16.8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36	19.5
마을 단체관광	자주 참여한다	25	13.5
	가끔 참여한다	32	17.3
	보통이다	46	24.9
	참여하지 않는다	42	22.7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40	21.6

<표 22> 삶의 행복여부

문항	구분	빈도	%
삶이 행복하십니까?	매우 행복하다	9	4.9
	행복한 편이다	79	42.7
	보통이다	81	43.8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14	7.6
	전혀 행복하지 않다	2	1.1